

# 고개의 호칭으로서 '현'과 '령'의 변별요인에 관한 연구

조승래\* · 강영조\*\*

\*동아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 조경학과 · \*\*동아대학교 도시계획 · 조경학부

## A Study on the Discriminating Factor of 'Hyeon' and 'Ryeong' by the Names of Mountain Passes

Cho, Seung-Rae\* · Kang, Young-Jo\*\*

\*Dept. of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Dept. of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Donga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basis for the names of mountain passes that have been different since antiquity, especially names such as thos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er focused on 108 mountain passes listed in the section of Gyeongsangdo that is a part of Joseon's representative human geographic literature, 'Sinjong Dongguk Yeoji Seungram'. Then the author found out their location by reviewing 'Joseon Hugi Jibang Jido', 'Daedong Yeojido' and 'Hanguk Jimyeong Chongram'. Out of the 180 passes, 30 were finally selected to be analyzed. Again 15 among 30 were found named as 'Hyeon', 7 as 'Ryeong' and remainder were called either term on occasion. The study tried to find out standards according to whether the 30 passes were named as 'Hyeon' or 'Ryeong'.

To carry out the study, the author made 3 hypotheses. First, the passes' altitudes were examined. Then visual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when seen from the summit of the passes. Finally, the number of the passes' turns was investigated to know whether this discriminates between 'Hyeon' and 'Ryeong'.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ith the altitudes and the visual characteristics as mentioned above, it was not possible to determine features that clearly discriminate 'Hyeon' from 'Ryeong'. However, the number of the turn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names of the passes, 'Hyeon', 'Ryeong' and 'Hyeon or Ryeong'. It seems that 'Hyeon' and 'Ryeong' were discriminatively used depending on how mountain passes were apparently perceived with the number of their turns.

*Key Words: Passes' Altitudes, Visual Characteristics, Passes' Turns*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강조한 인류학자 프란츠 보아스(Franz Boas)는 영어로 눈을 지칭하는 단어는 눈(snow)과 녹는 눈(slush)으로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에스

**Corresponding author:** Seung-Rae Cho, Dept. of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Busan 604-714, Korea, Tel.: +82-51-200-6940, E-mail: jsr318@hotmail.com

키모어에는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이 있어 각각의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일한 물리적 대상이 언어권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인식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Hall, 1990).

산이 국토의 7할을 차지하는 우리에게 고개는 예로부터 공간과 공간을 구분하고, 서로 이어주는 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우리는 에스키모어가 눈에 대한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듯이 고개에 대한 경험과 풍경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해왔다. 예를 들면, 한자어로는 현(峴), 령(嶺), 점(岾), 치(峙), 항(項) 등이 있고, 한글에는 고개, 재, 티, 목 등이 있다.

지명을 명명하는 행위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경관을 등가적이며 연속적인 것으로 두지 않고 의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불연속적으로 분절하는 것이다(강영조, 1995). 실제로 환경을 구분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환경에 생기를 불어주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깊이와 감흥은 더해가는 것이다(Lynch, 1960).

하지만 현시점에서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고개에 대한 다양한 호칭을 사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호칭들을 구분하는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개의 호칭을 변별할 수 있는 특성을 분석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고개의 호칭이 담보하고 있는 경관적 이미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 2. 관련연구

지형명칭에 관한 선행 연구에는 목마을과 용산을 대상으로 지명에 투영된 공간인식을 다루고 있는 연구(강영조, 1993; 1996)와 해안 지형경관을 소재로 지형적 특징을 논한 연구(강영조, 1995) 등이 있으나, 고개의 지형호칭에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고개를 공간적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는 고개의 지명을 분류하고 고개의 입지와 분포를 지리적으로 고찰한 연구(김양자, 1989)와 고개의 경관적 가치에 주목하여 고갯마루에서 보는 조망특성을 연구한 것이 있다(강영조 등, 2005).

## II. 연구방법

### 1. 고개의 호칭 유형

고개를 나타내는 호칭을 사전에서 검토해 보면 한자어로는 령(嶺), 현(峴), 점(岾), 치(峙), 항(項) 등이 있으며, 한글로는 고개, 재, 목, 티 등이 있다.

먼저 한자어로 사용되는 고개 호칭들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령(嶺)'은 '1) 고개, 재, 2) 산길, 3) 산봉우리'로, '현

(峴)'은 '재, 고개'로 풀이하고 있으며, '점(岾)'은 '고개'로, '치(峙)'는 '산이 우뚝 솟을 치'로, '항(項)'은 '1) 목뒤, 목덜미, 2) 크다, 3) 조목, 항목'으로 해설하고 있다(장삼식, 1996). 그리고 한글로 통용되는 고개의 호칭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재'는 '령(嶺),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있는 높은 산의 고개'로, '고개'는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게 된 비탈진 곳'으로, '티'는 '고개를 넘는 가파른 비탈길'로 나타내고 있으며, '목'은 '통로의 다른 곳으로는 빠져 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깊은 곳'으로 해설하고 있다(이희성, 1994).

이 외에도 김하돈(1999)은 '령(嶺)'과 '재(岾)', '고개'는 같은 의미로, '현(峴)'은 비교적 낮은 안부로, '치(峙)'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곳의 안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외 신정일(2006)은 '고개'란 지형상 산줄기가 낮아져 안부를 이루는 부분이며, '령(嶺)'은 산등성이가 조금 나지막하고 평평한 곳으로 이런 곳에다 길을 내어 령의 이쪽저쪽이 통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 문인 김극기는 대관령을 '긴 뱀처럼 구불구불 무릇 몇 겹인지'로 표현하고 있으며(민족문화추진회, 1969), 사천 이병연도 겸재의 「단발령망금강산」에 붙인 제화사에서 단발령을 '드리운 길 구불구불 용이 오르는 듯'으로 묘사하고 있다(최완수, 1999). 즉 이들은 고개호칭 '령(嶺)'으로 명명된 대관령과 단발령의 공통된 경관이미지를 고갯길의 선형에서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개의 호칭이 여러 갈래로 세분되어 있으나, '티'와 '목'을 제외한 나머지 고개의 호칭에 대해서는 뚜렷한 변별 기준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한자어로 사용되는 호칭 중에서 '령(嶺)'과 '현(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령(嶺)'과 '현(峴)'의 의미를 사전에서 '고개'와 '재'로 동일한 해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사전 외의 설명에서는 '령(嶺)'과 '고개'는 같은 뜻으로, '현(峴)'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고개로 구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령(嶺)'의 경관이미지를 고갯길의 선형 형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 2. 조사대상 고개의 수집

본 연구에서 자료로 사용할 고개의 호칭 수집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이용하였다. 조선왕조는 건국 후 지리지 편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간행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에 완성된 「동국여지승람」을 수정, 보완하여 1530년에 간행된 것으로 조선시대 지명을 수집하는 자료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산천편과 관방편에는 모두 440개소의 고개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108개소의 고개가 수록되어 있는 경상도 지역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1 참조). 108개소의 고개는 모두 4가지

표 1.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고개와 소재지 파악 실태

번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고개명	소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후기지방도	대동여지도	한국지명총람	소재지 파악 여부	번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고개명	소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후기지방도	대동여지도	한국지명총람	소재지 파악 여부	
1	舍羅峴	경주부	○	-	-	○	●	56	甲乙嶺	청도군	○	-	○	-	-	
2	成峴	경주부	○	-	-	-	-	57	省峴	청도군	○	○	○	○	●	
3	八助嶺	경주부	○	-	-	-	-	58	餘叱洞嶺	신령현	○	-	-	-	-	
4	柿嶺	경주부	○	-	○	○	●	59	甲峴	신령현	○	○	○	○	●	
5	楸嶺	경주부	○	-	○	○	●	60	件峴	영산현	○	-	○	-	-	
6	茂嶺	경주부	○	-	○	-	-	61	尼勿峴	영산현	○	-	○	-	-	
7	鷄遶嶺	경주부	○	-	○	○	●	62	馬峴	창령현	○	-	○	-	-	
8	件代嶺	경주부	○	-	-	-	-	63	倭躑峴	상주목	○	○	○	-	-	
9	曉星帖	울산군	○	-	-	-	-	64	大鳥峴	상주목	○	-	-	-	-	
10	柳峴	영천군	○	-	-	-	-	65	竹峴	상주목	○	○	○	-	-	
11	古峴	영천군	○	-	-	-	-	66	松峴	상주목	○	○	○	○	●	
12	別乃峴	홍해군	○	-	○	○	●	67	赤峴	성주목	○	-	○	-	-	
13	其比峴	동래현	○	-	○	-	-	68	加乙峴	선산도호부	○	-	○	-	-	
14	吾海也項	동래현	○	○	○	-	-	69	余乙峴	선산도호부	○	-	○	-	-	
15	沙峴	영일현	○	-	○	○	-	70	左峴	금산군	○	-	○	-	-	
16	杏帖	영일현	○	-	○	-	-	71	卦方峴	금산군	○	-	○	-	●	
17	穿火峴	언양현	○	○	○	-	-	72	葛項峴	개령현	○	-	○	-	-	
18	耳而峴	안동대도호부	○	-	○	-	-	73	右峴	개령현	○	-	○	-	-	
19	豆毛峴	안동대도호부	○	○	○	-	-	74	牛馬峴	지례현	○	○	○	-	●	
20	茅峴	안동대도호부	○	-	○	-	-	75	釜項峴	지례현	○	○	○	○	●	
21	龜嶺	안동대도호부	○	-	○	-	-	76	餅峴	지례현	○	○	○	○	-	
22	石峴	안동대도호부	○	-	○	○	●	77	伊火峴	문경현	○	○	○	○	●	
23	古巖峴	안동대도호부	○	-	○	-	-	78	雞立嶺	문경현	○	-	○	○	●	
24	西泣嶺	영해도호부	○	-	-	○	-	79	烏嶺	문경현	○	○	○	○	●	
25	烏峴	영해도호부	○	○	○	○	●	80	知乙峴	합천군	○	-	○	-	-	
26	南面峴	영해도호부	○	-	○	○	●	81	頭里峴	합천군	○	○	-	-	-	
27	松峴	영해도호부	○	-	○	○	●	82	阿峴	합천군	○	○	-	○	●	
28	刀峴	청송도호부	○	○	○	○	●	83	馬峴	합천군	○	○	-	-	-	
29	二者峴	청송도호부	○	○	○	○	●	84	葛帖	합천군	○	-	○	-	-	
30	柳峴	청송도호부	○	-	○	○	●	85	舞月峴	초계군	○	-	-	○	●	
31	於火峴	청송도호부	○	-	○	-	-	86	高法峴	초계군	○	-	-	-	-	
32	枝峴	청송도호부	○	-	○	-	-	87	仇爛峴	초계군	○	-	○	-	-	
33	歸毛峴	예천군	○	-	-	-	-	88	挑峴	함양군	○	-	-	○	●	
34	馬兒嶺	영천군	○	-	○	-	●	89	八良峴	함양군	○	○	○	○	●	
35	串赤嶺	영천군	○	-	○	-	-	90	城峴	남해현	○	-	○	○	-	
36	白嶺	영천군	○	-	○	-	-	91	長峴	의령현	○	○	○	-	-	
37	竝嶺	영천군	○	-	○	-	-	92	大峴	의령현	○	-	○	○	●	
38	竹嶺	풍기군	○	○	○	○	●	93	車帖	하동현	○	-	○	-	-	
39	礪峴	풍기군	○	-	○	-	-	94	理盲帖	하동현	○	-	○	○	●	
40	骨里峴	풍기군	○	-	○	○	-	95	蟹帖	하동현	○	-	○	-	-	
41	茅峴	의성현	○	○	○	-	-	96	長嶺	하동현	○	-	-	-	-	
42	百丈嶺	의성현	○	○	○	○	-	97	六十峴	안음현	○	○	○	○	●	
43	林勿峴	영덕현	○	○	○	○	-	98	栗川峴	김해도호부	○	○	○	-	-	
44	破吞巖峴	봉화현	○	-	○	-	-	99	熊猪峴	김해도호부	○	○	-	-	-	
45	新羅峴	봉화현	○	○	○	○	●	100	陣峴	김해도호부	○	-	-	-	-	
46	楸峴	진보현	○	○	○	○	●	101	露峴-1	김해도호부	○	○	○	○	-	
47	風峴	군위현	○	-	○	-	-	102	露峴-2	김해도호부	○	-	-	○	-	
48	槌峴	군위현	○	-	○	-	-	103	綾峴	김해도호부	○	-	-	-	-	
49	磊峴	군위현	○	-	-	-	-	104	私峴	창원도호부	○	○	-	-	-	
50	長葛峴	예안현	○	○	○	○	●	105	大峴	함안군	○	○	○	-	-	
51	八助嶺	대구도호부	○	○	○	○	●	106	城峴	고성현	○	-	○	-	-	
52	胡法峴	밀양도호부	○	-	○	-	-	107	天王帖	고성현	○	-	○	-	-	
53	鈴峴	밀양도호부	○	-	-	-	-	108	赤峴	칠원현	○	-	○	-	-	
54	羅峴	밀양도호부	○	-	-	-	-									
55	日峴	밀양도호부	○	-	-	-	-	계				108	35	81	40	34(4)

법례: ○: 소재지 확인, -: 소재지 미확인, ●: 현지조사, ●: 미조사(현재 고갯길에 폐쇄된 경우와 정확한 고개지점 파악이 곤란한 대상지)

호칭으로 구분되었다. 그 중 '령(嶺)'은 20개소, '점(岾)'은 7개소, '항(項)'은 3개소(葛項峴과 釜項峴을 포함한 경우)이며, '현(峴)'이 78개소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수집한 고개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조선후기 지방지도」와 「대동여지도」를 이용하였다. 전체 108개소의 고개 중 「조선후기 지방지도」에서 소재지 파악이 가능한 고개는 35개소로, 「대동여지도」에서 소재지 파악이 가능한 고개는 81개소로 나타났다. 그 중 2개의 고지도에서 중복확인된 고개는 30개소로 나타났다. 다음은 전국의 지명을 총망라하여 수집하고 편찬한 「한국지명총람」을 이용하여 과거의 한자어 고개명과 현재 통용되는 고개명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여기서 확인되는 고개는 모두 40개소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지도에서 확인된 고개와 「한국지명총람」에 수록된 고개 중 축척 1/25,000의 지형도상에서 소재지 파악이 가능한 고개는 모두 34개소로 나타났다. 그 중 실제로 현지조사에서 정확한 소재지 파악이 가능한 고개는 30개소였다.

30개소의 고개 중에서 한자어 호칭 '령(嶺)'은 7개소,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현(峴)'으로 명명되었으나 이 후 「조선후기 지방지도」와 「대동여지도」, 「한국지명총람」등에서 '령(嶺)'으로 혼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8개소, '현(峴)'은 15개소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본 논문의 연구대상 고개의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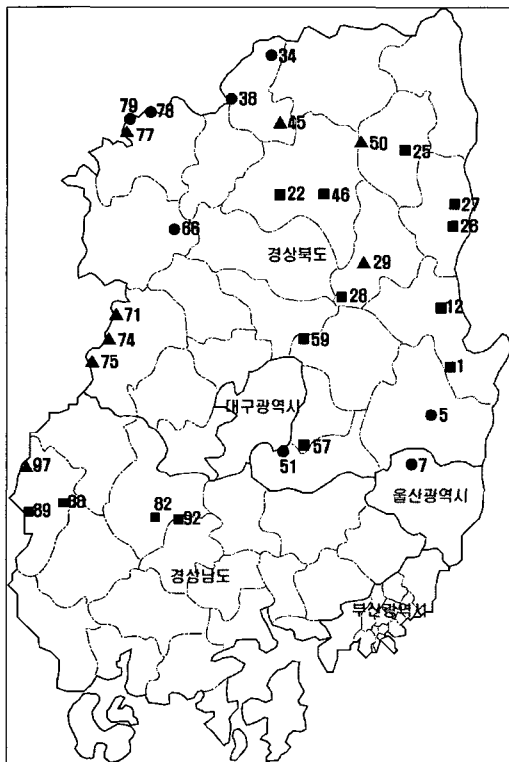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지 위치도  
 범례: ■: 현, ●: 령, ▲: 현, 령 혼용

표 2. 조사대상지 고개명

번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고개명	조선후기 지방지도	대동여지도	현재통용되는 고개명	구분
1	舍羅峴	-	-	사라재	■
5	楸嶺	-	-	추령	●
7	鷄述嶺	-	-	치술령	●
12	別乃峴	-	-	별태재	■
22	石峴	-	-	돌고개	■
25	鳥峴	-	-	웃재	■
26	南面峴	-	-	자부터고개	■
27	松峴	-	-	망재	■
28	刀峴	-	-	갈재	■
29	三者峴	삼자령	-	삼자현재	▲
34	馬兒嶺	-	-	마구령	●
38	竹嶺	-	-	죽령	●
45	新羅峴	신라령	-	신라재	▲
46	楸峴	-	-	가랏재	■
50	長葛峴	-	장갈령	장갈령	▲
51	八助嶺	-	-	팔조령	●
57	省峴	-	-	남성현	■
59	甲峴	-	-	갑령재	■
66	松峴	-	-	솔티	■
71	卦方峴	-	괘방령	괘방령	▲
74	牛馬峴	-	우두치	우두령	▲
75	釜項峴	부항령	부항	부항령	▲
77	伊火峴	-	-	이화령	▲
78	雞立嶺	-	-	하늘재	●
79	鳥嶺	-	-	조령	●
82	阿峴	-	-	아등재	■
88	挑峴	-	-	범시랑재	■
89	八良峴	-	팔랑치	팔랑재	■
92	大峴	-	-	한티	■
97	六十峴	육십령	육십치	육십령	▲

범례: ■: 현, ●: 령, ▲: 현, 령 혼용

### 3.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은 한자어로 사용되는 고개 호칭의 변별 특성이다. 특히 문헌에서 수집된 고개 호칭 4종류 중에서 '령(嶺)'과 '현(峴)'을 중심으로 변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나머지 고개의 호칭 '점(岾)'과 '항(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개 호칭 '점(岾)'은, 조선 후기 정약용이 당시의 일상용어의 바른 사용법을 위해 저술한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자(國字)로 '령(嶺)'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며(김중권 역, 1976), '항(項)'은 고갯마루가 입지한 지형 부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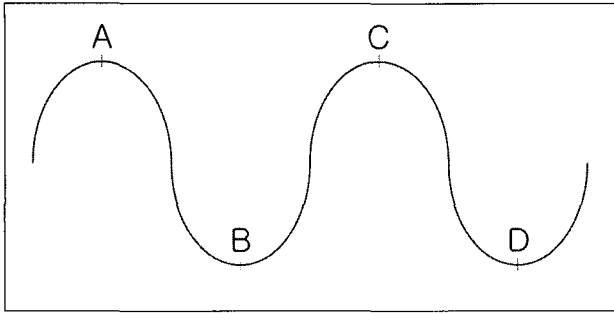


그림 2. 고갯길의 변곡점

유형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영조 등, 2005). 고개의 호칭 '령(嶺)'과 '현(峴)'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현(峴)'이 '령(嶺)'보다 비교적 낮은 안부에 위치한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고별로 고갯마루의 분포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고갯마루(시점)에서 보는 부각과 시거리 등의 시각특성과 호칭 변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갯길은 그림 2의 A, B, C, D와 같이 지형의 특성상 다양한 변곡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변곡점, 즉 고갯길의 굽이와 고개호칭 변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고갯마루의 표고에 의한 현과 령의 차이 분석

고개호칭의 변별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갯마루가 위치한 표고를 지형도를 이용하여 '현(峴)', '현(峴), 령(嶺) 혼용', 그리고 '령(嶺)'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그림 3, 표 3 참조).

조사대상지 고갯마루의 표고는 최저 60m에서 최고 810m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고개 호칭에 따른 고갯마루의 표고 분포는 다음과 같다.

고개호칭 현(峴)'의 분포는 전체 15개소 중 표고 100~200m 사이에서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표고 200~300m 사이에서 4개소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고 100m 이하와 600~700m 사이에서 각각 2개소로 집계되었다. 그 외, 표고 400~500m, 500~600m 사이에서 각각 1개소씩 나타났으며, 표고 300~400m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고개호칭 '현(峴), 령(嶺) 혼용'의 분포는 전체 8개소 중 표고 500~600m 사이에서 3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700~800m 사이에서 2개소가 나타났다. 나머지는 표고 300~400m, 400~500m와 800~900m 사이에서 각각 1개소씩 나타났다.

그리고 고개 호칭 '령(嶺)'의 분포는 전체 7개소 중 표고 600~700m 사이에서 2개소가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표고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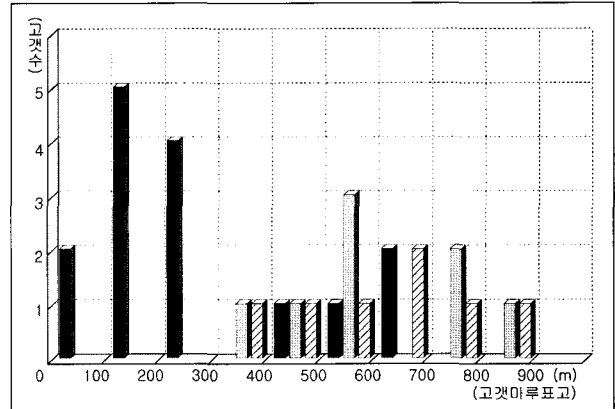


그림 3. 표고별 고개 분포도

범례: ■ : 현, □ : 현, 령 혼용, ▨ : 령

400m, 400~500m, 500~600m, 700~800m, 800~900m에서 각각 1개소씩 파악되었다.

전체적인 분포도를 살펴보면 고갯마루의 표고가 300m 이하에서는 고개호칭 '현(峴)'만 11개소가 나타났으며, 표고 300~400m 사이와 700m 이상에서는 고개호칭 '현(峴)'이 분포하지 않았다. 그리고 표고 400~700m 사이에는 고개호칭 '현(峴)', '현(峴), 령(嶺) 혼용', '령(嶺)'이 각각 4개소씩 서로 혼재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고개호칭 '현(峴)'으로 명명되어진 고개는 상대적으로는 표고가 낮은 곳에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갯마루 표고의 구분 없이 고개호칭이 서로 혼재되어 분포하는 구간도 다수 파악되었다. 이는 고개호칭을 '현(峴)'과 '령(嶺)'으로 구분하여 명명하는데 있어서 고갯마루의 표고차이로서는 명확한 변별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2. 고갯마루에서 보는 시각특성에 의한 현과 령의 차이 분석

고개호칭 '현(峴)'과 '령(嶺)'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갯마루에서 내려다보는 시각특성을 이용하였다. 시각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핸드레벨을 이용하여 고갯마루에서 내려다보는 부각을 측정하고, 1/25,000지형도 상에서 고갯마루의 표고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각과 표고를 이용해서 시거리를 도출하였다.

고개와 같이 시점이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경관대상에 대한 부각이 경관의 인상을 결정 지운다고 한다. 부각 -10~-8°가 시측에 해당하며 거기에 주경관이 있을 때 인상적인 경관체험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부각 -3~-2°를 부감의 상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내려다보다'라고 하는 행동의 한계라고 한

표 3. 고개의 시각특성

번호	고개명	유형	부각(°)	시거리(km)	표고(m)	비고
1	舍羅峴	산허리형	-4~-1	2.6~10.3	180	■
5	楸嶺	산허리형	-5~-1	3.5~17.8	310	●
7	鷲迹嶺	산마루형	-10~-2	4.3~21.9	765	●
12	別乃峴	산 목 형	-3~-1	1.3~4.0	70	■
22	石峴	산허리형	-3~-1	2.9~8.6	150	■
25	烏峴	산허리형	-10~-2	3.9~19.5	680	■
26	南面峴	산허리형	-2~-1	3.4~6.9	120	■
27	松峴	산허리형	-2~-1	1.7~3.4	60	■
28	刀峴	산허리형	-7~-2	5.1~18.6	650	■
29	三者峴	산허리형	-10~-2	2.9~14.9	520	▲
34	馬兒嶺	산허리형	-15~-2	3.0~23.2	810	●
38	竹嶺	산 목 형	-6~-2	6.6~19.7	689	●
45	新羅峴	산 목 형	-5~-2	5.1~12.9	450	▲
46	楸峴	산 목 형	-4~-1	3.1~12.6	220	■
50	長葛峴	산 목 형	-6~-2	5.4~16.3	570	▲
51	八助嶺	산허리형	-14~-2	1.6~11.7	410	●
57	省峴	산허리형	-9~-2	1.6~7.2	250	■
59	甲峴	산허리형	-8~-1	1.8~7.2	250	■
66	松峴	산 목 형	-3~-1	2.1~6.3	110	■
71	卦方峴	산 목 형	-3~-1	5.7~17.2	300	▲
74	牛馬峴	산 목 형	-5~-2	8.2~20.6	720	▲
75	釜頂峴	산 목 형	-10~-2	4.5~22.9	800	▲
77	伊火峴	산 목 형	-14~-2	2.2~15.7	548	▲
78	雞立嶺	산 목 형	-4~-1	7.4~29.8	520	●
79	烏嶺	산 목 형	-	-	640	●
82	阿峴	산허리형	-4~-1	4.3~8.6	150	■
88	挑峴	산 목 형	-5~-1	2.3~11.5	200	■
89	八良峴	산 목 형	-4~-1	7.3~29.3	513	■
92	大峴	산허리형	-10~-2	2.7~11.5	400	■
97	六十峴	산 목 형	-8~-2	4.9~20.0	700	▲

범례: ■: 현, ●: 령, ▲: 현, 령 혼용

다(篠原修, 1982). 조사대상지 고개 중 부각측정이 곤란한 조령을 제외한 나머지 고개 29개소를 대상으로 '현(峴)', '현(峴)', '령(嶺)혼용', '령(嶺)'으로 구분하여 시각특성을 분석하였다(표 3, 그림 4 참조).

먼저 고개에서 조망되는 부각의 범위를 살펴보면, 부각 -3~-2°사이, 즉 부각의 상한에 해당하는 영역에는 고개호칭 '현

(峴)'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현(峴), 령(嶺)혼용'이 1개소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하는 고개는 상대적으로 낮은 표고라 할 수 있는 300m 이하에 입지한 경우이다. 그러나 부각의 중심영역과 일반 상한치 사이의 영역 -7~-4°범위에는 '현(峴)'이 6개소, '현(峴), 령(嶺)혼용'이 3개소, '령(嶺)'이 3개소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부각의 중심영역 -10~-8°사이에서는 '현(峴)'이 4개소, '현(峴), 령(嶺)혼용'이 3개소, '령(嶺)'이 1개소로 나타났다. 그 외, 부각이 -10°를 벗어나는 범위에는 '현(峴)'은 나타나지 않았고, '령(嶺)'이 2개소, '현(峴), 령(嶺)혼용'이 1개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고와 부각을 이용하여 고개에서 보는 시거리를 분석하였다.

경관의 표정을 파악할 수 있는 최대거리를 3km로 본다면(篠原修, 1982), 이 범위에는 고개호칭 '현(峴)'이 9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령(嶺)'과 '현(峴), 령(嶺)혼용'은 각각 2개소씩 나타났다. 그러나 시거리 3km를 벗어나는 즉, 원경역에 조망대상이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峴)'이 6개소, '현(峴), 령(嶺)혼용'이 6개소, '령(嶺)'이 4개소로 서로 혼재된 분포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각의 범위가 수평경에 가까운 영역인 -3~-2°사이에서는 고개호칭 '현(峴)'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나, 그 밖의 부각범위에서는 고개호칭에 관계없이 서로 혼재된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고갯마루에서 보는 시거리의 경우에는 경관의 표정을 알 수 있는 3km 이내의 조망범위에는 고개호칭 '현(峴)'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나, 원경역에서는 호칭에 따른 조망범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고갯마루에서 보는 시각특성은 고개호칭 '현(峴)'과 '령(嶺)'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3. 고갯길의 굽이 수에 의한 현과 령의 차이 분석

고갯길의 선형에서 발생하는 굽이와 고개호칭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림 5에 소개된 죽령과 팔랑현은 「택리지」 복거총론 산수편에서 모두 큰 고개로 소개하고 있다(이익성 역, 1993). 그러나 두 고개의 지형도를 비교해 보면 고갯길의 선형에서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고개호칭 '령(嶺)'의 죽령은 많은 굽이로 이루어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이에 비하여 고개호칭 '현(峴)'의 팔랑현은 「택리지」에 큰 고개로 소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의 굽이가 죽령에 비하여 현저히 적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개호칭이 '현(峴)'과 '령(嶺)'으로 혼용되어 불리는 신라현(령)의 지형도를 보면, 고개의 굽이 정도가 죽령보다는 적으나, 팔랑현에 비해서는 현저히 많이 형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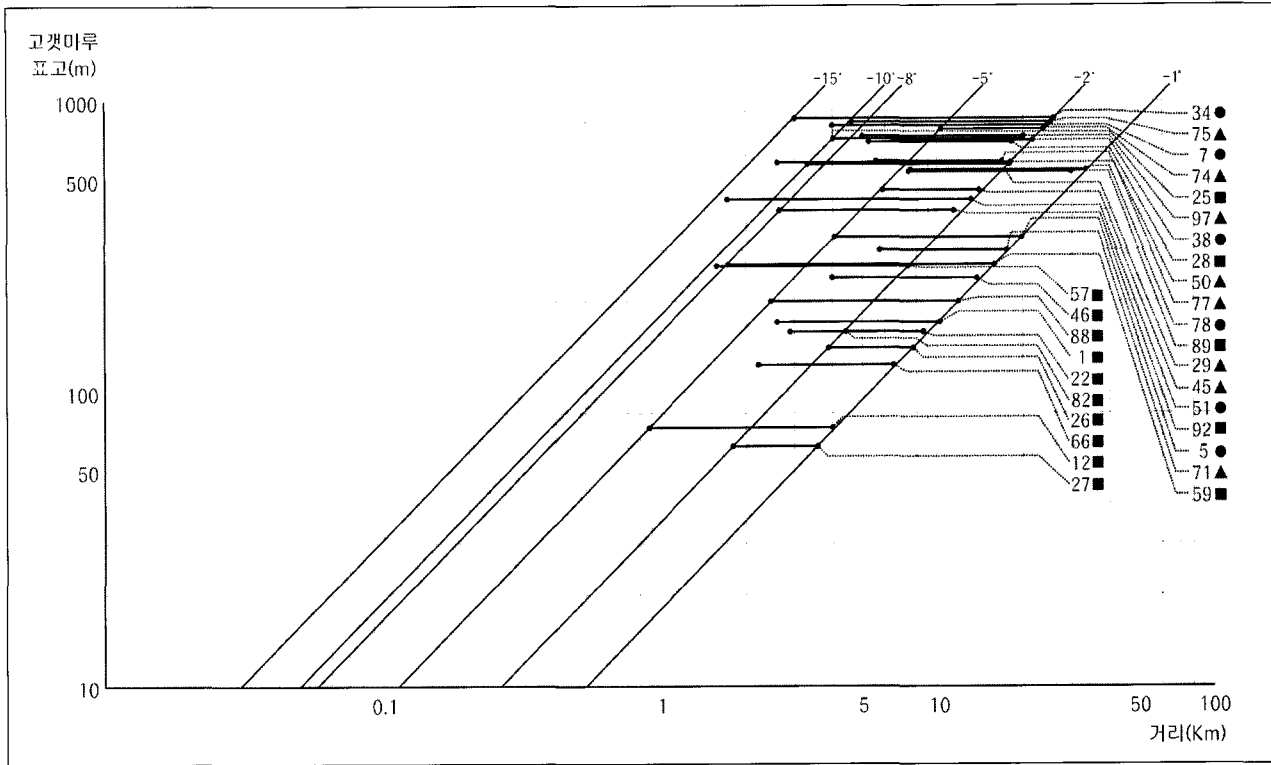


그림 4. 고갯마루에서 보는 경관에 대한 부각  
 범례: ■: 현, ●: 령, ▲: 현, 령 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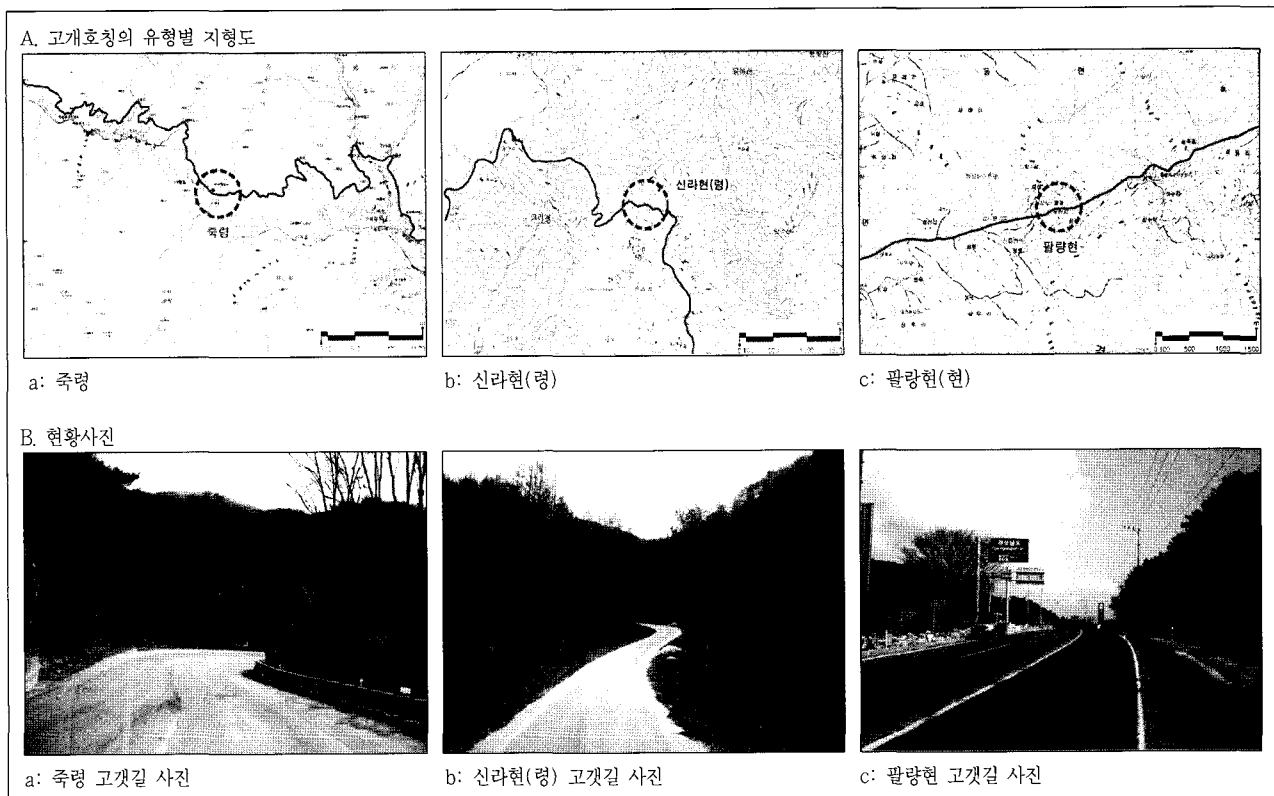


그림 5. 고개호칭의 유형별 지형도와 현황사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고개의 굽이가 고개 호칭을 변별할 수 있는 중요한 인식의 근거로 보고 고개의 굽이 수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범위는 1/25,000의 지형도상에서 고갯마루를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발견되는 고개의 굽이 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범위를 반경 1km로 한정할 이유를 들면 죽령이나 팔랑현과 같이 크고 긴 고개도 있으나 송현과 같이 상대적으로 고갯길의 선형이 짧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를 통일하기 위해서이다.

조사대상지 고개의 굽이 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고개호칭 '현(峴)'으로 명명되어진 고개 15개소 중에서 가장 많은 굽이가 발견된 고개는 오현과 추현으로 각각 12곳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도현이 11개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고개의 굽이 수는 10개 미만이며, 별내현과 팔랑현, 대현은 굽이 수가 5개로 가장 적은 분포로 나타났다. 이들 15개소의 고개의 평균 굽이 수는 7.5개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고개호칭 '령(嶺)'과 '령(嶺)'이 혼용되는 8개의 굽이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삼자현(령)과 신라현(령)이 굽이 수 19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쾌방현(령)이 굽이 수 14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들의 굽이 수는 주로 10~20개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은 16.8개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마지막으로 고개호칭

'령(嶺)'을 사용하는 고개 7개소에서 나타난 굽이 수를 보면, 팔조령이 34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계림령의 굽이 수가 가장 적은 20로 나타났다. 이들 고개의 굽이는 모두 20개 이상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굽이 수는 26.4개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이상의 결과로 보면 고개호칭 '현(峴)'과 '현(峴)'과 '령(嶺)'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령(嶺)'에 따라서 고개의 굽이 수가 현저히 차이 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즉, '현(峴)'과 '령(嶺)'은 고갯길에서 체험하는 굽이 정도의 차이를 분절하는 고개호칭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고개호칭 '현(峴)'과 '령(嶺)'을 고갯마루가 위치한 지형부위에 따라 산목형, 산허리형, 산마루형으로 유형화하여

표 4. 고개의 굽이 수

현			현, 령 혼용			령		
번호	고개명	굽이 수	번호	고개명	굽이 수	번호	고개명	굽이 수
1	舍羅峴	7	29	三者峴	19	5	楸嶺	28
12	別乃峴	5	45	新羅峴	19	7	鵝迹嶺	29
22	石峴	5	50	長葛峴	15	34	馬兒嶺	24
25	烏峴	12	71	卦方峴	14	38	竹嶺	21
26	南面峴	6	74	牛馬峴	18	51	八助嶺	34
27	松峴	6	75	釜項峴	17	78	雞立嶺	20
28	刀峴	11	77	伊火峴	18	79	烏嶺	29
46	楸峴	12	97	六十峴	14			
57	省峴	9						
59	甲峴	8						
66	松峴	6						
82	阿峴	9						
88	挑峴	6						
89	八良峴	5						
92	大峴	5						
계		112			134			185
평균		7.5			16.8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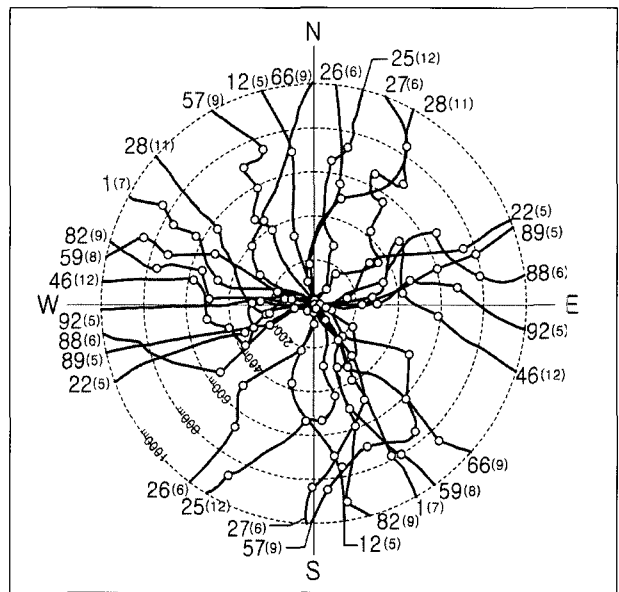


그림 6. 고개호칭 '현'의 고갯길과 굽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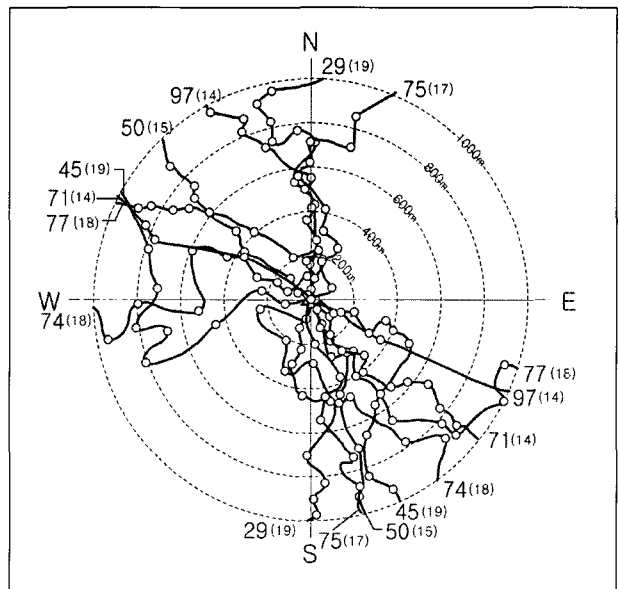


그림 7. 고개호칭 '현, 령 혼용'의 고갯길과 굽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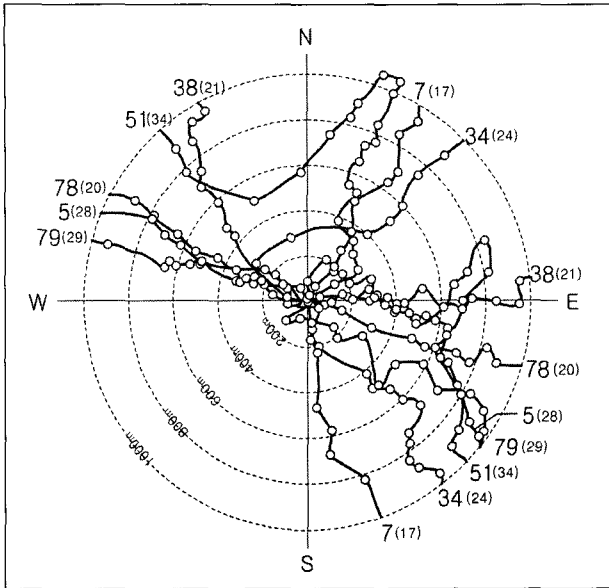


그림 8. 고개호칭 '령'의 고갯길과 굽이 수

구분하면 표 5와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조사대상지 고개 30개소 중 산마루형은 고개호칭 '현(峴)'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령(嶺)'에서 1개소만 나타났다. 그리고 산허리형은 '현(峴)'에서 9개소, '령(嶺)'에서 3개소, '현(峴)과 령(嶺)'이 혼용되는 고개호칭은 1개소로 모두 13개소의 고개가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산목형은 모두 16개소로, '현(峴)'이 5개소, '령(嶺)'이 4개소, '현(峴)과 령(嶺)'의 혼용이 7개소로 나타났다. 산목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이유를 들면, 이번 조사대상지 고개가 주로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경상북도 내륙지역에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산의 '목(項)' 부분은 산이 두 마을 또는 도시를 분단하는 경계가 된 곳에서 주로 보이는 것으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할 때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통로로서 고갯길 형성에는 최적의 장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경상도 지역에 소재한 고개 30개소를 대상으로 고개 호칭의 명명근거가 되는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개호칭 '현(峴)'과 '령(嶺)'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갯마루의 표고에 의한 '현(峴)'과 '령(嶺)'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고개 30개소 중 표고 300m 이하에서는 고개호칭 '현(峴)'만 11개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고 400~700m사이 구간에서는 고개호칭 '현(峴)', '현(峴), 령(嶺) 혼용', '령(嶺)'이 각각 4개소씩 서로 혼재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5. 현, 령의 지형형태와 개요

고개호칭	유형	블록다이어그램	지형개요	해당고개
峴	산목형		고갯마루는 능선과 능선 사이에 위치하고, 고갯길은 비교적 완만한 나선형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12, 46, 66, 88, 89
	산허리형		고갯마루는 산허리에 위치하고, 고갯길은 비교적 완만한 나선형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1, 22, 25, 26, 27, 28, 57, 59, 92
	산마루형		고갯길이 산정부에 위치하고, 고갯길은 비교적 완만한 나선형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
嶺	산목형		고갯마루는 능선과 능선 사이에 위치하고, 고갯길은 다양한 굽이로 형성되어 있음.	38, (45), (50), (71), (74), (75), (77), 78, 79, 82, (97)
	산허리형		고갯마루가 산허리에 위치하고, 고갯길은 다양한 굽이로 형성되어 있음.	5, (29), 34, 51
	산마루형		고갯마루가 산정부에 위치하고, 고갯길은 다양한 굽이로 형성되어 있음.	7

( ): 고개호칭 현과 령이 혼용되는 고개

둘째, 고갯마루에서 보는 시각특성에 의한 '현(峴)'과 '령(嶺)'의 차이를 고찰한 결과를 보면, 부감의 상한에 해당하는 영역인 -3~-2°사이에는 주로 고개호칭 '현(峴)'이 나타났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고개호칭에 관계없이 서로 혼재되어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갯마루에서 보는 조망범위에서도 고개호칭에 따른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고개호칭에 따른 고갯길의 굽이 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갯마루를 기준으로 하여 반경 1km 이내에서 파악되는 굽이 수를 보면, '현(峴)'은 굽이 수가 평균 7.5개인 반면에, '령(嶺)'은 굽이 수가 평균 26.4개로 집계되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峴)'과 '령(嶺)'이 혼용되어 통용되는 고개호칭의 굵이 수는 평균 16.8개로 이들의 중간 영역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조사대상지 고개의 지형형태를 검토한 결과, 산목형이 전체 30개소 중 16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지 고개가 주로 산지로 둘러싸인 경상북도 내륙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이상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고개호칭 '현(峴)'과 '령(嶺)'의 변별에는 고갯마루의 표고나 거기에서 내려다보는 시각특성보다는 고개에서 인식하는 길의 형태, 즉 고갯길의 굵이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개호칭에 내재되어 있는 경관적 이미지를 밝히 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지를 경상도지방에 한정하여 고찰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적용에는 제한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결론의 뒷받침을 위해서는 대상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인용문헌

1. 강영조(1993) 지명 명명공간의 형태와 상모적 지각의 지형보전적 고찰.

- 한국조경학회지 21(2): 68-79.
2. 강영조(1995) 낚시전문가에 의한 해안지형경관의 분류와 그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3): 69-79.
3. 강영조(1996) 용산의 지형상모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4(3): 68-78.
4. 강영조, 조승래, 김희정(2005) 고개의 조망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3(4): 22-32.
5. 김양자(1989) 우리나라의 고개에 관한 지리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하돈(1999) 고개를 찾아서. 서울: 실천문학사.
7. 민족문화추진회(1969)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I-V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8. 신정일(2006) 다시쓰는 택리지 5. 서울: humanist.
9. 이익성 역(1993) 택리지. 이증환, 서울: 을유문화사.
10. 이희성(1994)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1. 장삼식(1996) 한한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12. 김종권 역(1976) 아연각비. 정약용, 서울: 일지사.
13. 최완수(1999) 경재를 따라가는 금강산 여행. 서울: 대원사.
14. 한글학회(1978-1979) 한국지명총람 경북편. 서울: 한글학회.
15. 한글학회(1979-1980) 한국지명총람 경남편. 서울: 한글학회.
- 16.篠原修(1982) 土木景觀の計畵. 東京: 技報堂.
17. Hall, E. T.(1990) The Hidden Dimension. 김광문, 박종평 (역), 보이지 않는 차원. 서울: 세진사, 2001.
18. Lynch, K.(1960) The Image of City. 한영호, 정진우 (역), 도시환경디자인. 서울: 광문각, 2003.

원 고 접 수: 2007년 3월 23일  
 최종 수정 본 접수: 2007년 4월 23일  
 3 인 의 명 심 사 필